

2018년 사회복지 실천가아카데미

- 사회복지사의 이상이 일상이 되는 상상과 프락시스 -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사회복지 실천가들의 실천역량 강화와 가치 확립을 위해 매년 사회복지 실천가아카데미를 열고 있습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 실천가아카데미는 『사회복지사의 이상이 일상이 되는 상상과 프락시스』라는 주제로 유범상 교수(한국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과)님과 함께 합니다.

“사회복지는 질병, 무지, 장애, 노령, 고독 등 사회적 위험에 공동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자는 본질적으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함께 할 때 가능하고, 사회복지의 목적 자체가 함께 하는 우리가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하고 학습해야 한다. 학습은 더 나은 지역과 공동체를 위한 실천으로 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사는 체계적인 분석에 기반한 과학자(scientist)이자 현장에서 학습한 것을 실현하는 예술가(artist)이다. 이런 학습과 실천을 프락시스(praxis)라고 하는데, 이것은 의미를 묻는 실천이다. 올해 사회복지 실천가아카데미는 지금 이 자리에 머물지 않고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프락시스를 상상해보고자 마련되었다.”

1 (5/31) 인간다움의 조건에 관하여: 사회권의 눈으로 본 사회복지

사회복지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따라서 1강은 그 조건인 인권(특히 사회권)의 눈으로 사회복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2 (6/7) 빵을 품위있게 얻는 지혜에 관하여: 권리와 권력으로 본 사회복지

사회권은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이 재원이 소득이전을 통해 얻어진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에는 계층/계급 간 갈등과 타협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빵)을 품위 있게 얻는 공동체의 지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권리를 자각하고 이 권리를 얻기 위해 시민들이 영향력을 가질 때 가능하다.

3 (6/14) 사회과학 실험실에 관하여: 권리형 실천으로 본 사회복지

3강은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사회복지의 상상의 장소가 사회복지관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관은 사회과학 실험실이고, 이 실험실에서 사회복지를 자신이 아닌 권리의 관점에서 실천을 고민한다. 그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4 (6/21) No人에서 Know人으로의 길에 관하여: 선배시민으로 본 사회복지

4강은 노인들의 실천에 관한 논의이다. 노인은 잉여인간이 될 수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공동체의 길을 내는 존재일 수도 있다. 사회복지자는 어떻게 이들이 선배시민으로 인간다움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강의명	2018년 사회복지 실천가아카데미	주 제	『사회복지사의 이상이 일상이 되는 상상과 프락시스』
대 상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연대하고자 하는 사회복지 실천가 25명	강 사	유범상(한국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 시	5/31~6/21(매주 목), 16:00~18:30	장 소	서울노인복지센터 2층 철학교실
수강료	총 4회기 20,000원	문 의	김보미 사회복지사 ☎ 02-6220-8521)
신청 방법	[참가신청서] 이메일(bomi1027@seoulnoin.or.kr) 또는 팩스(6220-8528) 발송 [~5/29 접수마감] [수 강 료] 당일 납부 또는 사전 무통장 입금 (계좌번호: 하나은행 162-910002-88904 / 예금주: 서울노인복지센터)		

